

# “상상을 통하면 삶에 대개 몽클한 감동이 온다”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운곽 살펴보니

이미지 언어로 전환 시와 애매모함 유사점서 추동  
종교적 톤 속 230여점 변화와 실천 핵심 개념 투영  
시민참여 프로젝트, 시도민 대상 ‘쇠모으기 운동’

올해 9월 5일 개막해 11월 15일까지 열릴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결국 릴케의 시 구절에서 차용한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확정했다. 이는 다분히 변화를 모토로 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지난 12일 오후 진행된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를 발표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호추니엔 예술감독이 언급한 핵심 개념들인 ‘변화’와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전체 전시 구성의 가장 저변에 깔린 바탕이 될 것임을 직시할 수 있었다.

또 전시 규모가 드러났다. 규모는 23개국 45명 안팎의 작가 230여점으로 광주·전남출신 작가는 5명 선에서 조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역사상 최소 규모의 작가가 참여하는 기록이 쓰여질 예정이다. 주제 확정과 함께 광주비엔날레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참여작가 면면이다. 현재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작가 출품형태는 한 작가의 여러 점이 전시장에서 관찰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전시 주제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체코 출생 독일문학의 대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가 1908년 발표한 시 ‘고대 아폴로의 토로스’ 마지막 구절에서 차용된 것으로, 예술이 우리 삶의 변

화에 영향을 주는가의 물음에 대해 전폭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릴케의 사유와 올해 전시 콘셉트가 부합되면서 비엔날레 내 부적으로 이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제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세계적 미술축제 주제로 차용된 이면에는 비평적 활동의 하나인 미술 작품을 보는 행위를 문학처럼 언어로 전환하는데 있어 애매모함의 일치한다는데서 같은 공감의 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애매모함한 시와 시각미술의 시각적 세계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기영 전시부장은 “릴케는 인간다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예술을 생각했다. 예술과의 마주침을 통해 강력하고 다이나믹한 삶의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낸 것을 접할 수 있다”면서 “강이론 작가 작품 이미지에서 봤듯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 요소 요소들을 접하며 동화돼서 연상되는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상상의 힘이다. 지금 감독님들이 생각하는 건 예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 상상을 통해서 그런 거라 우리 삶에 대개 몽클한 감동이 온다”고 전했다.

현재 전시내용의 실체가 많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비엔날레 전시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는 GB 커미션의 시민참여 프로젝트



(재)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로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전시내용과 관련 질의응답에 나선 (왼쪽부터) 호추니엔 예술감독, 최경화·박기화·브라이언 쿠안 우드 큐레이터, 통역해설사.

트가 관람객들 앞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IMF 사태 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함께 했던 DJ의 금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갖는 시사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권병준 작가와 박찬경 작가 등 두 명이 이끌 ‘불림’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불림’ 프로젝트는 일종의 쇠모으기 운동으로 광주와 전남 특별시민들이 하나 돼 동참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다. 키워드로 통합과 화합,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프로

젝트명 ‘불림’은 밥알을 ‘불리’거나 돈을 ‘불린다’고 할 때와 같은 의미의 명사형으로 이해하면 된다. 광주와 전남인들로부터 금을 기부받아 악기를 만든 뒤 다시 악기를 만들어내는 소리·설치 작업이다. 광의적으로 공동체 정신의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자는 모토다.

참여작가의 한명으로 이름을 올린 강이론 작가의 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작가 모두를 AI 시로 투영해 전시 포스터를 만드는 시도여서다. 강 작가는

처음에 디자이너로 참여했지만 작품에 대한 구상이 참신해 이를 접한 호추니엔 감독이 작가군으로 분류하면서 작품 출품이 가시화된 장본인이다.

강 작가의 시도는 이미지로 우리가 어떻게 시를 창작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어서 나름 의미를 갖는 작업으로 수용된다. 강 작가가 시도한 것이 이미지를 주고 시한테 시를 써봐라 한 것인데 이미지를 보고 시를 쓴다는 점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 보통 사람들한테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경

우 더더욱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비엔날레 김요성 사무처장 등은 날마다 전시포스터가 한쌍씩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밝히 관심이 쏠렸다. 이외에 관람객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화용 티켓 방안도 이야기 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주전시와 함께 매 대회 진행돼 왔던 파빌리온 국가관은 30여곳 규모로 광주시 일원에서 주전시기간 동안 열릴 계획이다.

고추수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촉구 특별 시사회

21일 영상복합문화관 6층 독립영화관  
박기복 감독 신작 ‘밥’·‘낙화잔향’ 상영

박기복 감독의 신작 ‘밥’과 전작 ‘낙화잔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를 묶은 유니버스 영화 특별 시사회가 오는 21일 오후 3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 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제작사 ㈜무당벌레필름은 윤석열 내란 계엄의 완전한 종식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번 시사회를 마련했다.

시사회에서 상영할 신작 ‘밥’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오마주(존경)한 작품이다.

영화는 굶어 숨진 모녀의 영혼을 위로하는 무용수의 의식 속에서 1980년 5월에 죽은 소년이 환생한다는 설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대사가 없는 무대사 영화 형식으로 제작돼 침묵과 몸짓을 통해 역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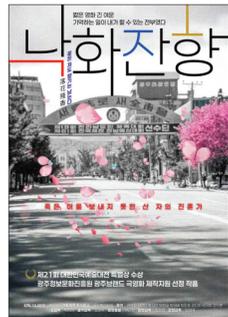
기억의 의미를 표현한 실험작이다. 이 작품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자산 콘텐츠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5~2026년 연속 지원을 받았다.

출연진으로는 전남예고 무용과 박소희, 연극과 윤성희, 노건우, 박서연 등으로, 이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의 언어로 표현한다. 전남도교육청도 학생 인권 영화 제작에 협조했다.

함께 상영할 영화 ‘낙화잔향-꽃은 저도 향기는 남는다’는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배우 지망생과 그를 보호하려는 계엄군의 비극적인 만남과 이별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브랜드 극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제21회 대한민국예술대전’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기복 감독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



곡’을 시작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다. 그는 “폭력에 맞서는 가장 강한 무기는 기억과 기록”이라는 신념 아래 역사와 인간의 이야기를 영화로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박기복 영화학교’를 운영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행사 오프닝에서는 출연 배우 소개와 함께 한강 작가의 북구 효동초등학교 친구인 시낭송가 김향미씨가 소설가 한강의 시 ‘회상’을 낭송할 예정이다.

이번 시사회 이후에는 광주 5개 지구구와 전남도 사·군을 잇는 릴레이 시사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현대적 기법 투영 다양한 ‘말’의 세계

김윤결 개인전 18일까지 무등갤러리

전통 도자의 표면 장식이 현대에 이르러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등 채색의 이야기에 집중해온 김윤결 작가의 제16회 개인전이 지난 12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상(像)-또 다른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65여점.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주요 모티프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구성된 말의 다양한 도자 조각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상(像)에 대한 연작으로 시작된 작업의 주된 표현 방식은 말이며, 전통적인 문양을 매개로 해 작가의 기억들을 담아내는 도자 조각으로 이해하면 된다.

말은 작가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존재로서 기억의 장소(place of memory)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 기억 속 작가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페인팅, 드로잉 같은 회화적 이미지를 통한 내면성을 조형 언어로 드러내고 있다.

‘말’의 모티프로 형상을 제작하고 작품의 표면에는 도자 물감으로 다양한 패턴을 그려 넣거나 말을 타고 노는 어린이, 이, 버드나무, 말 모양의 유닛으로 장식을 한다. 이로써 작업을 통해 작가의 기억을 드러내는 동시에 작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윤결 작가는 단국대에서 전통도예를 전공한 뒤 국립근산대에서 현대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7년 미국 전시를 앞두고 더욱 더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고추수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필리핀 설화·전래동화 ‘어린이 음악극’으로

ACC재단, ‘거인 양갈로’ 22일까지 어린이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명규)이 필리핀 민간 설화와 우리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음악극을 선보인다.

어린이 음악극 ‘거인 양갈로’는 필리핀 민간설화 ‘바닷물은 왜 짭?’과 우리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뱀들’을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이다.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소금을 둘러싼 사건과 거인 양갈로의 여정을 통해 우정과 나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무대는 음악과 몸짓,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출이 어우러진 형태로 구성된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 전개와 리듬감 있는 음악이 더해져 몰입도를 높인다.

제작은 창작극악그림 그리미 맡는다. 이 단체는 전통 음악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해 온 팀으로, 어린이를 위한 음악

극을 꾸준히 선보였다.

김명규 사장은 “ACC가 축적해 온 어린이 공연 창·제작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레퍼토리”라며 “국내 투어를 통해 검증된 작품을 다시 ACC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이게 돼 뭉클하다”고 밝혔다.

공연은 21일 오후 2시, 22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각각 열린다.

예매는 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5000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BTS 컴백 리허설, 안전 고려 별도 공간서 진행

그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멤버들이 별도 공간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컴백 공연의 사전 리허설을 안전과 보안 고려해 별도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리허설은 본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화문 공연의 경우 무대가 야외여서 신곡을 포함한 세트리스트 등 공연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안전상 문제와 음향 등으로 인한 주변 소음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별도 공간에 최대한 공연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